

사료 및 가족영양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하고

조 흥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전호에서 심포지움 참석에 대한 개황을 소개드렸기 때문에 이번호부터는 미국 농무성과 대두협회가 공동초청한 교육여행과 이번 여행중 틈을 내어 즐길 수 있었던 관광여행을 함께 차례로 엮어 소개드리기로 한다.

우리 일행이 7월10일 대한항공기편으로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한 것은 김포공항을 이륙한지 두시간 후인 12시이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세시간을 머무른 후 세계최대의 항공회사인 팬암사의 747항공기편으로 보슬비가 내리는 하네다 공항을 출발하여 태평양 횡단의 여정에 올랐다. 우리는 해와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7월 10일의 하루 해는 짧았으며 해가 진지 4시간만에 동쪽 하늘에는 벌써 먼동이 트이고 동근 아침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비행기내에서는 하네다공항을 출발한지 곧 식사가 제공되었고 영화가 상영되었으며 영화가 끝난다음에는 모두 간단한 취침을 했을 뿐이다. 우리는 미국에서 7월 10일을 다시 맞이한 셈이다. 도쿄로 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태평양횡단에는 약 9시간이 걸리며 이 코스가 태평양 횡단의 최단거리이기도 하다. 우리는 8시간반 정도를 비행 끝에 벌고먼 미국대륙을 처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며 30분 후에는 태평양의 관문인 낭만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했다. 우리는 공항에서 입국수속과 통관검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입국 수속이 지난 4년전에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보다는 매우 엄격하게 체크되고 있었다. 이 샌프란시스코 공항은 태평양의 관문으로서 여객기가 빈번하게 왕래하여 1분10초마다 이착륙이 이루어진다고 하며 마치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고속패스터미달이나 시외패스터미달의 패스의 발착 현상을 연상케

하고 있었다. 일행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두시간 정도를 기다린후 10:50분에 웨스턴항공기편으로 낭만의 도시 금문교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를 떠나 쉐레이크시로 출발하였다.

쉐레이크시로 가는 도중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캘리포니아주와 네바다주는 건조하고 강수량이 적은 준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메마른 산맥과 사막으로 초라한 인상을 풍겨주었으며 골짜기에는 약간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 보인다. 약 1시간이 지나니 발 아래서 염분함량이 높기로(일반 해수의 염분함량이 3%가 조금 넘는데 8%나 된다고 함)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레이트솔레이크湖가 눈앞에 전개되고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동광의 제련소 굴뚝에서 검은 연기를 뿜고 있는 광경이 보인다. 그 칼나 우리가 탄 여객기는 서서히 좌선회를 하더니 쉐레이크시 공항에 착륙하였다. 공항에는 유타주립대학교에서 사회학 박사과정을 현재 이수하고 있는 강대기선생이 마중을 나왔다. 이분은 경북 풍기출신으로 고려대학에서 축산학 석사과정을 공부할 때 서울대 한인 규박사로부터 가족 영양학을 사사받은 분으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으면 서울의 S대학의 사회학 교수로 귀국을 꿈꾸는 유망주이기도 하다. 그분의 안내로 쉐레이크시의 그분택으로 가니 수도의대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쉐레이크시립병원에서 근무중인 상냥하고 온화한 품위를 갖춘 미세스강이 반가히 부군의 스승인 한박사를 맞이하였다. 우리 일행은 그다음날인 11일 오후에 여기서 80마일(약 130km)이나 되는 로겐시에 위치한 유타주립대학교에 심포지움 참석등록을 하여야 함으로 우선 강선생의 친구를 통하여 등록을 부탁하고 시내 호텔에 가서 여장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후 심포지움 참석과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관광스케줄을 협의했다.

그래서 11일날은 남부 유타주와 아리조나주에있는 그랜드 캐년공원을 관광하고 심포지움이 끝나는 16일은 와이오밍에 있는 예로우스턴

공원을 그리고 17일 출발전에는 몇시간의 틈을 내어 그레이트솔레이크湖를 관광하기로 매우 타이트하고 무리한 스케줄을 확정시켰다.

그리고 스케줄대로 진행하기 위하여 10일 저녁 11시에 식사를 마치고 한밤중인 11일 오전 2시 10분전에 강선생택을 출발 남부유타주로 향하여 시원한 밤공기를 맞아가며 시속 80km의 속도로 마치 적진을 향하여 돌진하는 기분으로 달렸다.

한밤중이라 차량의 행렬은 비교적 한산하였으나 고속도로에는 제법 많은 차량이 이동하고 있었다. 콜로라도의 달밤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지만 유타주의 달밤도 우리 일행에게는 다정하고 우아한 분위기를 안겨주었다. 한쪽으로는 골짜기에 눈이 쌓여 있는 와삿치산맥을 끼고 준사막지대의 서부의 황야를 이국 만리타향에서 코리안 셋이 낭만의 서부를 주름잡듯 달리는 것도 인상적이 었다, 쉐레이크 시에서 100여마일 거리까지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곳곳에 타운이 있고 정유공장의 불길 이 휘황하게 비쳐주었으나 고속도로를 벗어나 차선으로 된 지방도로로 들어서서 한참을 달리고 나니 촌락도 보이지 않고 길가 표지판에는 사슴을 주의하라는 표식이 있다. 도로상에는 이도로를 가로질러다 역사(隳死)한 들쥐, 산토끼, 스캅크, 사슴등의 시체가 즐비하다. 참으로 무인지경의 대평원을 벗어나니 인디안의 부락도 보이고 목장도 곳곳에 보인다. 한참을 달리니 먼동이 트이고 습결이 가빠져 호흡이 좋지 않다. 지도상에 8,000피트의 표시가 있다. 아마도 산소 부족한 고산병 증세인 것 같다. 7시경 우리는 지방도로를 벗어 부라이스캐년으로 통하는 길로 들어섰다. 가는 입구에는 빨간 흙으로 야산을 이루고 있었으며 골짜기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침식작용을 받아 레드캐년을 이루고 있었다. 레드캐년을 지나 들판을 가로질러 10여마일을 달리니 그곳이 남부 유타주의 관광명소의 하나인 부라이스캐년이었다.

이곳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바람과 비에 의한 풍화작용 즉 침식작용으로 생긴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부라이스캐년 국립공원이 다. 이곳은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옛날

그 어느 때인지 부터는 몰라도 커다란 골짜기가 온통 침식작용을 받아 붉고 노란 흙덩어리가 아름답고 기이한 여러가지 모양을 하고 있어 “여왕의 정원” “걸리버의 성” “창문의 벽” “낙타와 현자(賢者)” “실날과 같이 날선한 몸매” “여왕의 성” “부라이스 사원” “세 사람의 현인” “협곡의 담벽” “빅토리아 여왕” 등 탐은 모양의 이름을 붙여 부르고 있었으며 골짜기마다 형형 각색의 모습이 보이는 진기한 풍경들이 특히 아침햇살에 비치어 더욱 그 모습들이 화려하게 보이는 최대의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과연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늘이 복을 내린 축복받은 나라임에 틀림없다. 만약 이곳이 비가 많이 오는 지방이라면 이와 같이 진기하고 아름다운 장관은 처음부터 생기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생겼다 하여도 그 형체가 보존되지 못하였을 것이다. 우리는 8시경에 부라이스캐년 휴게소의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목적지인 아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년 대협곡 국립공원으로 출발하였다. 남부유타주의 경계를 지나니 북부 아리조나주의 광막한 대평원이 눈앞에 전개된다. 이 대평원을 지나니 카이팜 국유림의 울창한 원시림사이로 그랜드 캐년 복단으로 가는 도로가 지나간다.

이 국유림은 뽕뽕히 쭈쭈 곧은 울창한 수목들이 태고의 신비로움을 간직한채 말없이 서 있다. 이 울창한 국유림을 80km 이상이나 달리니 그랜드캐년의 복단 관광지점이 나선다. 주차장에 주차시키고 우리는 캐년의 위용을 카메라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랜드캐년의 이곳 저곳 전망지점을 옮겨가며 대협곡을 전망하니 깎아지른듯한 수백길 수천길의 계층을 이룬 낭떠러지(斷崖)가 전개된다. 그리고 저 건너 대협곡의 남쪽에는 형형 각색의 협곡이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그곳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협곡사이에는 콜로라도강이 흐른다고 한다. 이 캐년의 복단에 있는 전망지점으로는 Sub Lime Road, Imperial 지점, 비스타 엘칸타도라, 부라이트 엘절등 곳곳에서 전망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 그랜드캐년을 충분히 관광하려면 1주일이 이상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단 하루를 이용하여 왕복 1,400km

이상의 강행군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거름을 재촉하면서 카메라의 샷대를 눌러댔다.

이 대협곡공원이야 말로 부라이스캐년에 비하여 그 성격이 다르다. 규모에 있어서 확실히 그랜드 캐년은 웅장한 모습이 남성적이라고 할수 있으며 태고의 신비가 서려있는 대자연의 놀라운 모습은 참으로 감탄할 따름이다.

4년전 이 대협곡공원의 상공을 지나면서 대자연의 신비로움에 감탄한 나머지 언젠가 한번은 직접 가봤으면 하고 희망하던 이곳에 직접 와보니 이 대경관이야 말로 가보지 않고서는 필설로 표현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다. 증공의 모택동이 미국을 혐오했지만 미국에 대하여 두가지는 부러워 했다는 기사가 있다.

그 두가지 중에 하나가 그랜드캐년(대협곡)공원이고 또하나가 뒤에 소개드릴 예로우스턴 국립공원이라고 한다. 이야기를 들으니 미국인들도 평생에 그랜드캐년공원, 예로우스턴공원, 그리고 나이아가라폭포만 보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일화가 있다. 이와 같은 찬사만 들어도 이 그랜드 캐년 공원이 얼마나 훌륭하고 장엄한 모습을 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곳곳의 전망대로 통하는 길은 좁고 아래를 굽어 보면 현기증을 느낄 정도로 가파르기 때문에 관광객 중 어느 부부는 다섯살 가량된 머슴아이를 마치 강아지처럼 끈으로 묶고 따라 다닌다. 우리 일행이 바라보니 그 아이의 어머니는 방긋웃으면서 dog, dog 하고 말한다. 아마도 동양인을 보니 자식에 대한 대우가 역겨웠던 모양이다. 우리도 답례로 베리군 아이디어를 외었다. 우리 일행이 관광한 북단에서는 콜로라도 강이 보이지 않지만 시간 여유가 있으면 콜로라도강을 따라 대협곡의 신비가 서린 장관을 두루 살필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채 쏘레이크시를 향하여 길을 재촉했다.

우리는 가던 길을 되돌아 아리조나를 뒤로 하고 남부유타주에서는 방향을 바꾸어 자이온 국립공원을 거쳐 오기로 하였다. 자이온국립공원은 부라이스캐년이나 그랜드캐년공원과는 아주 특징이 다른 관광지이다. 이곳은 온통 바위산으로 공원을 이루고 있었다. 어떤곳은

온통 산봉오리하나가 체크보드(板)와 같이 규칙있게 자연적으로 그어진 금이 탁상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1km도 넘는 터널이 바위산 중턱을 뚫고 나 있었으며 터널의 곳곳에는 마치 창문과 같이 암벽을 뚫어 놓아 밝은 햇살과 맑은 공기가 통하도록 터널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었으며 차를 타고 달리노라면 앞이 겹겹이 쌓여 있어 바위산으로 둘러 쌓인 골짜기가 끝이 없다. 이 둘산에는 오솔길을 내어 관광객들이 이 오솔길을 따라 그 웅장한 바위틈사이에서 철따라 자라고 있는 온갖 기화요초를 감상 할 수 있게 해 놓았다고 한다. 그리고 계곡 사이로는 아름다운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낚시꾼들의 흥미거리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드라이브로 약 반시간에 걸쳐 살펴보고 휴게소의 레스토랑에서 점심겸 저녁식사를 하고 늦을세라 길을 재촉했다. 100km 이상의 지방도로를 벗어나니 로스엔젤러스에서 쏘레이크시로 통하는 4차선 고속도로가 눈앞에 전개된다. 우리는 고속도로를 따라 도로 주변의 푸른 목장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떼를 뒤로하며 계속 달렸다. 필자는 뒷자리에서 졸음을 줄수 있었으나 앞자리의 강선생과 한박사께서는 잠시도 쉬지 못하고 수고해 준점 송구스럽기 그지 없었다.

우리는 도중의 인터체인지 휴게소에서 차에 개스를 넣고 쉬어가면서 저녁 11시경에 쏘레이크시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모두 세사람 늑초가 되어 기진맥진하여 꼼짝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세스강이 마련한 진수성찬으로 배를 불리고 자정이 지나자 80마일(130km)이나 떨어진 유타주립대학교가 있는 로겐시로 향하여 다시 출발하였다. 로겐시의 강선생숙소에 도착하니 새벽 두시가 되었다. 꼭 24시간을 달린 셈이다 우리는 잠시 자리에 들었다가 7시경에 일어나 아침식사를 마치고 8시반부터 시작되는 국제심포지움 개최식에 참가하고 이곳에서 머물면서 5일간의 심포지움에 참석했다. 로겐시에는 10여명의 한국유학생이 유타주립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강선생의 소개로 이번 국제심포지움에 참가한 한국인 세사람을 환영하기 위하여 한국

인 학생회에서는 7/14일 오후 6시에 공원에서 환영야유회를 베풀어 주었다. 야유회에는 5명의 한국유학생과 부인 꼬마들이 참석했고 한인규박사와 필자 그리고 미국 오레곤대학의 한박사, 부인 꼬마들 둘 모두 15~6명이 공원 잔디밭에서 불고기파티를 하며 국내의 소식과 조국의 발전상 미국에서의 그분들의 연구하고 생활하는 이야기, 연구생활이 끝난 다음의 나아간질등에 대한 이야기로 즐겁게 보냈으며 특히 한인규 박사께서는 우리나라 대학교의 실태와 교수처우문제 귀국후 그분들의 직장문제 등 유학생들의 궁금증이 풀리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셨다. 이곳의 유학생들은 10여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모두 열심히 연구에 몰두하고 또한 부부간에 서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우리는 어려운 처지에도 일행을 반가히 맞이하여 준 이곳의 한국인 유학생 여러분의 고마움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심포지움기간 중 하루는 강선생 내외의 초대를 받아 로겐캐년에서 야외불고기파티를 갖었다. 우리는 오후 5시에 심포지움을 마치고 강선생 숙소에 돌아와서 야외쿠킹준비를 해가지고 강선생분과 우리일행 모두 네사람이 로겐캐년으로 가서 불고기를 구어가며 저녁해를 보냈다. 이 골짜기는 유타주립대학교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아름다운 로겐캐년을 이루고 있었으며 골짜기에는 맑고 풍부한 시냇물이 급류를 이루며 흐르고 있는 계곡으로서 낚시꾼들의 낚시터로 이름높은 곳이었다. 시냇물이 어찌나 차거운지 손을 담구고 1분을 견딜수가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심포지움이 열렸던 유타주립대학교는 여름방학으로 썸머스쿨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에 파란눈동자의 아름다운 고등학교 소녀들이 이 학교에서 무용들을 배우고 있어 학교 분위기가 한결 시원해 보였다. 유타주는 물몬교도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내에서도 금연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숙소에 돌아와서도 금연을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 하숙집에 금연표시가 있는데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면 쫓겨 난다는 것이다. 참으로 유타주는 엄격한 곳이라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심포지움 발표회가 끝나는 15일 오후에는 예정대로 예로우스턴공원을 관광하기 위하여 예정대로 이곳에서 320마일(510km) 이상 떨어진 와이오밍주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예로우스턴공원을 향하여 출발하기로 했다. 마침 오후 5시가 되니 강선생이 모든 준비를 해가지고 심포지움 개최장소밖에 와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참석한 안면이 있는 분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예로우스턴 국립공원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준비물로는 우선 가는 도중에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캔터키치킨후라이와 약간의 과일을 준비하고 일로 북으로 와이오밍을 향하여 달리기 시작했다. 로겐캐년을 지나 고개를 넘어서니 불이 맑고 아름답기로 이름난 Bear lake가 보인다. 베어레이크에는 별장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또한 보트놀이도 한참이며 트레일러에 보트를 싣고 피서온 피크닉족이 적지 않게 있었다. Bear lake를 지나 와이오밍주에 다달으니 유타주와는 달리 푸른 초원이 눈앞에 전개되고 고깃소보다는 젓소떼가 한가로이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광경이 보인다. 저 멀리 들판에는 석양에 무지개가 온들판을 아롱 새기고 있다. 목초지에 바위가 달린 연결식 스프링쿨러로 관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도로변의 휴게소에서 준비한 후라이치킨으로 간단하게 요기를 했다. 요기하는 동안 와이오밍의 모기는 아직 해도 지지않았으나 때로 풀리어 와서 빈약한 체구의 오리엔트들을 괴롭힌다. 아마 와이오밍의 모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사나운 모기임에 틀림없다 다시 갈길을 재촉했다. 남부 와이오밍에는 세계제일을 자랑하는 스위스 치즈공장이 있다. 우리가 치즈공장을 방문했을 때는 벌써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을 할리가 없다. 그러나 다행히도 치즈공장에 병설되어 있는 판매센타가 24시간을 개점하고 있어 여기서 만들어진 치즈를 맛볼수가 있었다. 여기서 만드는 치즈종류는 30종이 넘는다고 하며 판매센타에는 치즈를 맛볼 수 있도록 각종 샘플을 잘게 썰어 놓았기 때문에 그 맛을 시식해 보니 그 중에서도 오니온(양파)맛

을 내는 오니온치즈가 우리 구미에 있는 것 같았다. 일행은 1 파운드의 오니온치즈를 사 가지고 해지는 와이오닝을 에로우스틴을 향하여 달리고 또 달렸다 에로우스틴으로 가는 도중 주유소에서 개스를 넣고 그 시가지에 설치된 커다란 사슴뿔로 만든은 아치에 놀랐다. 얼마나 사슴뿔이 많았기에 6 차선도로에 아치를 세울수가 있었을까 참으로 미국이 아니면 구경하기 어려운 진풍경이라 생각했다. 이제 겨우 500km의 여정중반을 왔기 때문에 서둘러 어둠을 뚫고 잭슨씨를 거쳐 테톤국립공원 입구에서 입장료를 내고 대망의 에로우스틴공원의 밀림을 헤쳐가며 중심지인 old faithful geyzer에 도착하니 벌써 새벽 한시가 되어 온 지칠대로 지쳐 있었다. 호텔에 들어갈을 청하랴 하니 웬지 숨이 가쁘고 속이 불편하여. 견딜수가 없었다. 서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불편의 도가 더해간다. 아마도 산소부족으로 생기는 고산병의 증세였을 것이다. 우리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니 차차 회복 되었다. 날이 새면 서둘러서 관광을 하고 당일로 쉐레이크크까지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 쉐레이크크까지는 630km나 된다. 그리고 7일 오후에는 아이오아주 데모인으로 교육여행을 떠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피로를 풀기 위하여 잠시동안 눈을 붙였다. 창문밖이 밝아오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우리도 에로우스틴의 상징인 old faithful geyzer라는 이곳의 간헐천을 구경하기로 했다 울트페이스홀간헐천의 분출높이는 106—108휘트(평균 130척)이고 시간간격은 짧은 때가 33분 가장 긴 때가 148분(평균 67분)이라고 하며 온도는 화씨 204°(섭씨 95.5°)이다. 이곳에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화씨 199°(92.8°C)에서 불이 끓는다. 한번 분출하는 물의 양은 5,000—7,000개론이며 이지대는 해발 7,366휘트가 되는 고원지역이다. 아침 8시가 되니 관광객들이 모여 들고 있었으며 울트페이스홀간헐천에서는 김이 점점 일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물을 뿜어냈다. 그러나 우리가 본 분출량은 많은 것이 아니고 적은 편이 것이었다. 간헐천의 분출광경을 보고 주차장으로 돌아오

니 그곳에는 한국꼬마녀석(네살짜리 동생과 여섯살짜리 형)이 있었다. 너희들 한국사람이냐 물어보니 반가워서 방긋 웃으며 예스한다. 너 몇살이냐 썩쓰어어스 올드한다. “너 언제 한국에서 왔니? 투 이어스 어고라고 형이 대답한다. 참 귀엽게 생긴 놈들이 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와 같은 구석진 곳에서 귀여운 꼬마들을 만날수 있었다니 반갑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 큰 꼬마녀석도 우리말을 조금 알아들을 수는 있었으나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다. 우리는 일정이 바빴기 때문에 서둘러 관광하기로 하였다. 에로우스틴의 관광코스는 약 300마일(약 480km)이 된다고 함으로 우리는 에로우스틴의 하이라이트중 일부만 훑러 약 100마일(160km)의 관광코스를 택쳐 달리기 시작했다. 비록 100마일의 관광코사이지만 이안에 2/3의 하이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서운치는 않았다. 첫째, 매디스강이 흐르는 강가의 간헐천을 보았고 계속하여 길은자주빛이 나는 가혈천인 plum geyes 물을 뽑는 사파이어색갈의 작은 못, 마치사발과 같은 우물, 중간길 간헐천의 작은 못, 물을 하늘 높이 뿜어 올리는 Great fountain Grand fountain, 물시계라고 불리는 혈천환반구형의 간헐천, white dom 간헐천, 페인트칠을 하는 항아리와 같은 분천(마치 풀을 끓일때 거품이 빠져빠져 올라오는 것과 같았음) 내열유리샘과 같은 우물 그리고 유황냄새를 풍기는샘등 가는곳마다 물을 뿜어대는 분수 간헐천, 여러가지 진귀한 색갈을 나타내는 작은 못들, 참으로 자연의 신비로움에 찬사를 보낼 따름이 었다. 이와 같은 명소를 찾아 달리다 보니 내 건너 풀밭에 대형 사슴인 엘크가 배를 지어 풀을 뜯어 먹고 있었다. 그리고 한 곳에 가니 야생 버팔로우(소의 원종) 세마리가 수풀속에서 물을 먹으러 냇가로 나와있다. 이곳에서 곰을 보려면 재수가 좋아야 볼 수가 있다고 한다. 곰은 숲속에서 대개 오후 배시경에 물을 먹으러 나온다고 한다. 에로우스틴에서는 캠핑도 제한된 구역안에서만 할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에로우스틴공원에서는 관광객들은 일정한 통로로만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야수가 자연상태에서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 어떤 때는 이곳에 눈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먹이가 없어 야수들이 굶어 죽는 경우도 있으나 이런 때에는 먹이를 공중 수송해 주기도 한다고 한다. 그리고 캠핑을 할 때 밤에 꿈이 침입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사태도 일어난다고 한다. 예로우스틴공원내에는 예로우스틴 강과 매디슨강이 흐르고 있으며 곳곳에 크고 작은 폭포들이 무수히 있다. 예로우스틴강의 그랜드캐니온은 또한 장관을 이루고 있다. 또한 예로우스틴 호수는 참으로 아름다운 호수임에 틀림없다. 이 호수에는 보트놀이하는 관광객도 적지 않으며 호수 저멀리 남쪽에는 거대한 테톤공원의 만년설이 더욱 아름답게 보인다. 아마도 예로우스틴의 면적은 우리나라 1개도의 넓이 보다도 넓지 않을까 추측된다. 이 넓은 면적이 모두 원시림과 아름다운 강 아름다운 호수 폭포 그리고 간헐천과 기이한 우물 그리고 풀밭을 이루고 있으며 그 속에서 온갖 조류(鳥類), 다람쥐, 엘크, 곰 등의 야수가 대자연의 만경하면서 서식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창조하실 때 또한번 예로우스틴이라는 복을 내리셨다. 참으로 미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아닐수 없다. 벌써 오후 한시가 지났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가야 할 쉐레이크시까지는 400마일 (680km) 이상이 된다. 도중에 테톤국립공원을 거쳐 갈 계획이다. 바빠 서둘러지 않으면 안되었다. 우리는 자연의 신비로움에 도취된채 예로우스틴을 뒤로하고 귀로에 테톤국립공원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테톤공원의 만년설이 뒤덮인 산봉오리의 골짜기들이 차츰 가까와진다. 테톤공원은 테톤산봉오리들과 호수를 이루어진 바위산의 연속이 수 10마일에 펼쳐 있다. 13,766척(4130m)의 그랜드테톤 모란산, 티위놀산등 높은 봉오리와 Death Canyon의 깊은 골짜기에는 7월 중순이지만 만년설이 쌓여 있으며 거기에 가을이 되면 다시 이 만년설위에 눈이 내려 쌓인다. 이 눈이 녹아 옛부터 호수를 이루어 그 맑은 호수물은, 만고에 아름다움을 관광객에게 만끽케한다. 유명한 호수로는 잭슨

호, 제니호, 스프링호, 레이호, 펠프호,가 있고 여기에 스테이크(뺨)하가 흐르고 있다. 평원의 수풀사이에 위치한 수많은 호수는 낚시꾼들이 즐기는 낚시터로서 피서객의 휴양지로서 가장 훌륭한 곳이었다. 벌써 오후 세시가 지났다. 자연에 도취되어 시간도 없어 서둘러 보니 이제는 시장끼가 들고 피곤하다 어테가서 간단하게 점심식사라 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마땅한 곳이 없다. 어서 달려 스키장으로 유명한 잭슨시까지 가기로 했다. 공원양쪽 입구에는 사슴(엘크)뿔로 만든 아치가 두개가 있다. 참으로 와이오밍주는 옛부터 사슴이 많이 서식하였던가 보다. 일행은 레스토랑을 찾아 오후 늦게 배시경에야 점심을 먹고 다시 길을 재촉했다. 참으로 먼 여행길이다. 우리는 해질 무렵에 도중에 조그마한 타운에서 중국집을 찾아 저녁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쉐레이크시로 통하는 고속도로로 들어섰다. 여기서 쉐레이크시까지의 아직도 150마일(240km)이상이나 된다 적어도 세시간 이상을 달려야 한다. 벌써 해는 저 주위는 어두워지고 있다. 피로는 점점 겹쳐서 지칠대로 지쳤다. 결사적인 주행 끝에 11시가 지나 겨우 쉐레이크시에 도착하였다. 참으로 유타주에서의 1주일의 평생 잊을 수 없는 멋진 1주일이었다. 우리는 호텔로 가서 잠을 청했다. 내일(7일) 오후에는 아이오아주 데모인으로 교육여행을 하여야 한다. 그 다음날 우리는 이곳에서 특특히 신세를 지었던 유타대학의 강선생 부부를 작별하고 유니타이드에어라인행 여객기를 타고 덴바시를 거쳐 데모인으로 향하였다.

유타주에서의 일주일 동안 한박사에 대한 강선생 부부의 사제지간에 이루어진 정성어린 우애는 참으로 본받을 만한 일이 아닐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제지간의 정은 량으로 표현될 수 없다. 참으로 교육자의 고행이란 이와같은 이국만리 타향에서 넉넉치 못한 여건하에서 몸을 바쳐 정성껏 은사를 보시는 그 겸손하고 정성어린 자세로 표현되는가 보다. 이와 같은 고귀한 정경은 다른 사회에서는 보기어려울 것이다. 덕택으로 필자는 아무 불편없이 유쾌한 여행을 할 수가 있었고 새로운 친구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분들께 다시금 감사를 드린다. (계속)